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 작년 1분기 이후 최저

- 한국은행의 12월 2일 3/4분기 국민계정 발표 결과, 실질 국민총소득(GNI) 전기대비 증가율이 작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저축률과 국내총투자율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3/4분기 명목 국민총소득(GNI)은 전기대비 1.0% 증가했고, 실질 국민총소득(GNI)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늘어나 전기대비 0.2% 증가에 그치면서 매우 낮아짐.
 - 3/4분기 총저축률은 31.2%로 전기대비 0.5%p 하락했으며 국내총투자율도 29.2%로 소폭 하락함.
 - 총저축률의 하락은 최종소비지출(1.5%)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(0.8%)보다 더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함.

- 한편,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기대비 0.7%, 전년동기대비로는 4.4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 - 경제활동별로는 전분기에 이어서 제조업 중심의 증가세가 나타남.
 - 제조업은 일반기계,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2.2%의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했고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로 전기대비 0.6%,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.
 - 서비스업은 도소매업, 금융보험업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임대업, 운수 및 보관업 등의 부진으로 전기대비 0.1% 증가에 그침.
 -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, 설비투자, 건설투자 중심의 증가세가 나타남.
 - 민간소비는 서비스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전기대비 1.3% 증가함.
 -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확대로 전기대비 5.5% 증가했고,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감소하였으나 토목건설이 증가하여 전기대비 1.3% 성장함.
 - 재화수출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, 자동차,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.9% 증가했고 재화수입은 원유 및 천연가스,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2.1% 증가함.

(2010년 3/4분기 국민소득(잠정), 한국은행, 12/2)